



카니누와 말로 ‘생명의 양식’
이라는 뜻입니다. (요 6:48)

박요섭, 조선향 동역서신 38 (2018-02)

한 마음 한 뜻

One in Spirit and Purpose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빌 2:2)

“카니누와 종족이 사는 마을에도 교회가 있나요?”

종종 듣는 질문입니다. 네,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까뮌야바 (Kamwiyava) 연합교회’. 카니누와 종족에게 복음이 처음 전해진 때가 1960년대 말 즈음이라고 합니다. 저희 섬 남쪽에 사는 바위도가 종족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을 통해 북쪽에 사는 카니누와 종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동안 오래된 초가지붕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가, 근 20년에 걸쳐 조금씩 지어온 예배당을 지난 2014년에 봉헌하였습니다.

“그럼 카니누와 목사님이 계시나요?” 이 질문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있으니 목사님은 당연히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7년에 처음으로 카니누와 출신 목사님이 까뮌야바 교회에 부임했다고 하면 많이 놀랍니다. “어, 그럼 그전에는 누가 설교를 했나요?” 곧 이어지는 질문이지요.

2016년까지는 외지에서 오신 목사님이 사역했습니다. 카니누와 말을 모르니 공용어인 영어나 그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까뮌야바 교회 성도들은 설교를 들을 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2016년 11월, 지난 10년 동안 카니누와 말로 번역한 마가복음, 사도행전, 요나서, 그리고 창세기와 출애굽기 일부 말씀이 한 권의 책으로 출판되어 봉헌되었고, 2017년 2월부터 카니누와 출신 암브로스 목사님이 3년 동안 까뮌야바 교회에서 사역하게 된 것입니다. (가운데 사진)

암브로스 목사님은 2005년부터 시작된 카니누와 성경 번역 사역에 처음으로 헌신한 두 명의 번역자 중 한 명으로, 2011년 까뮌야바 교회의 지원으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2014년 공부를 마치고 저희 섬 남쪽 지역에 있는 다른 종족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2017년에 까뮌야바 교회로 오게 된 것입니다.

카니누와 미니 성경 봉헌식을 앞두고 암브로스 목사님이 까뮌야바 교회로 부임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요.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에베소서 3:17b-19a, 새번역)

하나님의 때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어찌면 이리도 정확한지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암브로스 목사님을 통해 카니누와 미니 성경이 잘 사용되며, 까뮌야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맛볼 수 있게 해 달라고.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이라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곧 다가올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생각하니 작년 마을에서 드린 고난 주간 예배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그중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 그리 특별한 건가요?” 네, 까뮌야바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습니다.

1년 동안 드리는 예배의 본문 말씀을 교단에서 미리 정해 전달해 주는데, 감사하게도 작년에는 고난 주간 본문 말씀들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카니누와 미니 성경에 마가복음이 번역되어 있기에 까뮌야바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자신들의 말로 읽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본문 말씀을 카니누와 말로 읽고, 카니누와 말로 설교를 듣고. 그것도 고난 주간 내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는지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가슴이 뛰고 감사의 고백만이 흘러나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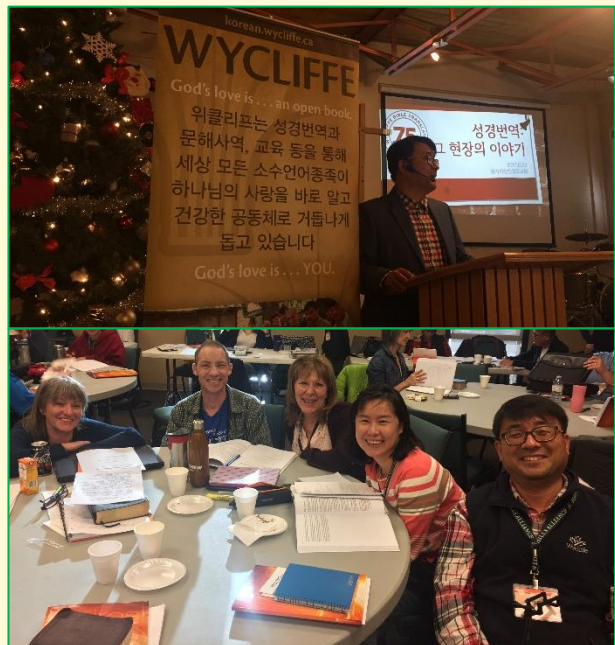
저희 사역과 일정

“추운 캘거리에서 지내느라 힘드시죠?”

요즘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그래도 봄이 오고 있어요.” 힘내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오후 4시만 넘어도 깜깜하곤 했는데 점점 해가 길어지는 것을 보니 계절의 변화가 조금씩 보입니다.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도 오랜만에 맛보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지난 연말연시 기간에도 여러 교회와 모임에서 저희를 불러 주셔서 성경번역 사역에 대해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 위클리프 캐나다 총회를 통해 오랜만에 여러 동료 선교사들을 만나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마침 새해 첫 주간에 시작하는 선교훈련이 있어서 이 훈련을 통해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새해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Wycliffe Bible Translators of Canada
 위클리프 캐나다 성경번역 선교회
 4316 - 10 St. NE Calgary, AB T2E 6K3
 전화: 1-403-250-5411 / 1-800-463-1143

후원문의
 한국(GBT): 031) 421-5324
 income@v2025.or.kr
 북미: kroffice_canada@wycliffe.ca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이들의 삶을 생각해 보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데 놓치고 있었던 그렇지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깊이 있게 성경을 공부하는 강의들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이것을 카니누와 번역자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2/23-25)에는 에드먼턴에서 열리는 선교박람회(Missions Fest Alberta)에 다녀옵니다. 80 여 개 기독교 단체와 학교가 참여하는데 현재 세계 선교 상황에 대해 잘 파악하고 파푸아뉴기니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자 합니다.

감사와 기도 제목

저희가 파푸아뉴기니에서 그리고 이곳 캘거리에서 계속 훈련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동하는 삶입니다. 두 곳이 전혀 다른 환경이기에 이동해도 어느 곳이 좀 낫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여전히 '이동하는 생활 자체'가 저희에게는 도전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두 곳 다 저희가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얼마나 세심한 분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 환경이 자주 바뀌어도 매일 새 힘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1. 카니누와 번역자들과 마을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두 많이 보고 싶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히 2, 3 월에는 마을에 비가 많이 옵니다. 홍수가 나기도 하고요. 미리 고구마를 캐서 보관해 놓기도 하는데 먹고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누가복음 번역에 진전이 있도록
2. 까뮌야바 교회 암브로스 목사님이 카니누와 미니 성경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아들 실버스터가 번역자로 헌신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도록
3. 다시 파푸아뉴기니로 돌아가 사역하려면 워킹비자가 필요합니다. 기존의 비자가 만료되어 새로 신청해야 하는데 대사관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11, 새번역)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결심하고 세운 계획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신구약 성경 전부를 자신들의 언어로 갖지 못한 사람들이 15억 명에 이르고, 번역 사역이 시작되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1636개 언어의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빛진 자의 마음으로 더 말씀을 가까이하며 성경 없는 종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클리프 캐나다 한인사무국에서 진행하는 RBBB 운동에 함께 해 주세요.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http://rbbb.wordlovers.ca/>)

저희와 함께 같은 길을 걸으며 늘 기도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고, 말씀이 삶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는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2018. 2. 21

박요섭 조선향 선교사 드림



저희 캐나다 연락처입니다.

이메일: joseph-joyce_park@wycliffe.ca
j-j.park@sil.org.pg

카톡 ID: kaninuwa2011
전화번호: 1-587-917-4007